

“성탄절 전 표결” 하원 ‘트럼프 탄핵’ 추진 가속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올해 성탄절 이전에 탄핵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세계일보'가 CNN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속전속결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25일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의회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소송을 제기한 도널드 맥겐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청문 조사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의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사실은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공개·비공개 증언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공개·비

공개 증언을 통해 탄핵 표결을 추진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대통령의 잘못과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행태가 대통령직과 양립할 수 있는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직권남용, 의회 방해, 사법 방해, 뇌물 수수 등 다수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증인들의 의회 청문회 증언 거부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도 민주당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 연방 법원으로부터 의회에서 증언하라는 판결을 받은 맥겐 전 법률고문은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증인이다. 하원은 맥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뮐러 전 특검의 조사를 어떻게 위촉시키려 했는지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맥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의회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뤄진 증언을 토대로 연내 탄핵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이어 항소법원도 보수 우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지명권을 적극 행사해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 판사까지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가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 와중에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꾸준히 진행돼 2곳의 연방항소법원 다수를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국제분쟁 등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워싱턴DC에 설치된 항소법원을 제외한 미 전역 12곳의 연방항소법원 중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연방항소법원은 대법원이 연간 100건가량의 사건만 심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நீ고서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구성을 5대 4의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든 데 이어 연방항소법원까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이루는 구조가 되게 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공적인 후보 지명에 대해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인준을 담

당한 상원 다수 정당이 공화당이라는 요인에 기인한다. 또 민주당이 다수였던 2013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를 판사 지명의 경우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을 공화당이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에 성공한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모두 48명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인 러셀 휠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임명 수는 버락 오바마 때 23명, 조지 W. 부시 때 28명, 빌 클린턴 때 27명, 조지 H. W. 부시 때 29명이다. 이 중 조지 H. W. 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이 모두 연임에 성공해 8년간 재임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대폭적인 교체에 이뤄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적인 판사 지명에 적극 나서지 않아 자신이 판사 지명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다며 비꼬는 투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종종 발언하기도 했다.

워싱턴대 로스쿨 대니얼 엠스 교수는 더힐에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되찾을 경우 정치적 충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12월 2일 ~ 12월 8일, 2019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쥐</p>	<p>뜻하는 바가 있으면 과감하고 공명정대하게,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투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되며,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혹 도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탄대로를 밟게 됩니다. 소인배와 시비를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말</p>	<p>행동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복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의 덕으로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표소</p>	<p>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우선하여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이나 동료를 가까이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면 뜻과 같이 행동하겠으나,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쁜 유혹이나 감언이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양</p>	<p>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 상황의 변동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확장하지 말고, 하던 일의 내부 관리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교섭할 일이 자주 생기겠지만, 서두르지 말고 내부 정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범</p>	<p>분수를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올바른 신념과 실행력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면 흥이 변하여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바른 마음으로 은인자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하여 결점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실력을 쌓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윗사람이나 동료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원숭이</p>	<p>임어가 용문에 오르듯이, 직장인은 승진하고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업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니, 겸손하고 관대하게 처세해야 합니다. 뜻하는 일은 대인(大人)의 자문을 구하여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토끼</p>	<p>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사소한 문제는 보류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거나,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닭</p>	<p>지금은 미래를 위하여 차분하게 내면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특히 학문 연구나 시험 준비와 같이 차분하게 실력을 쌓는 분야에 종사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여 나태한 생활을 해 나간다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거래에는 신중을 기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하는 일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용</p>	<p>운세가 왕성하더라도,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왕성한 의욕으로 일을 확장하게 되더라도 경솔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을 벌이면 실패가 따를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개</p>	<p>이제부터 완성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곧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좋은 운세이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앞길은 탄탄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뱀</p>	<p>지금은 확실한 전망을 세우기가 곤란하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계몽을 받아야 하듯이, 훌륭한 선배나 윗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자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므로 장래를 바라보고 산처럼 무겁게 덕을 쌓아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돼지</p>	<p>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에 힘쓰고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평소 애정적인 교분을 두텁게 해두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미리 알아서 해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매사에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실이 뒤따릅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